



18. 임신사 온도 조절 시 덕트 활용 방법은?

▣ 임신사란?

종부 후 스톨에 입식하여 분만 1주 전 분만돈사로 이동할 때까지 태아의 발육과 모돈의 상태를 조절하는 공간시설이며, 임신사는 온도는 16~18℃, 적정 습도는 60%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임신사의 환기 조건

임신사는 밀폐식과 개방식이 있으나, 국내 양돈농가는 주로 개방식 형태이며, 임신돈은 군사 돈방에서 사양하는 방식과 방목하는 방식이 있지만, 토지면적의 확보와 관리의 합리화가 어렵고 경영 규모의 확대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스톨에 1두씩 수용하는 단독 스톨식 돈사가 대부분입니다.

개방식 임신사의 환기는 여름철 양측벽의 커튼을 개방한 상태에서 플라스틱 덕트 천공으로 입기시키며, 겨울철에는 측벽커튼 틈새로 누출되는 양압식 환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밀폐식 임신사의 환기는 플라스틱 덕트 천공으로 입기시키며, 양측벽의 배기팬으로 배기시키는 중압식 환기를 권장합니다.

급이기나 급수기는 현재 스톨식 임신사로 전환되면서 가능한 많은 두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스톨전면에 위치하여 일정량을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자동 낙화하는 자동 급이 방식이 보급되어 있는데 먼지는 병원균뿐만 아니라 악취를 동반하므로 급이 시 급수되도록 하여 습식사료를 취식하게 함으로 부유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 양돈과 】